

여수시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체계 강화

중대재해팀 컨트롤타워 역할
팀장 382명 관리 역량 교육
사업장서 어린이집까지 관리

여수시가 일상 속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 분야 위험 요소 선제적 예방체계 강화에 나섰다. 중대재해는 공장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 다양한 공간, 공공시설, 작업 현장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여수시에만 67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시청 본청과 27개 읍면동은 물론 각종 공원, 도서관, 복지시설, 도로 작업 현장 등 전 부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전 부서의 안전보건 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시장이 경영책임자, 부시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직접 업무를 책임지며, 12명의 국·소·단장들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돼 있다. 근로자 안전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382명의 팀장들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 관리 감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종사자 의견 수렴과 작업 환경 측정, 건강 상담도 정기적으로 진행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실현 중이다. 특히, 도로변과 산림녹지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선제적 점검과 교육으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집과 도서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시민

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138개 대상 시설은 ‘중대시민재해’ 분야로,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구분해서 관리한다. 시는 법적 이행사항과 현장점검을 연 2회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 조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에 꼭 필요한 교량과 터널, 옹벽, 절토사면 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하수도 처리시설도 빈틈없이 살필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노인 이용 시설물 등 취약계층 관련 시설은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로 사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며 “모든 공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가 지난 1일 개장했다. 놀이터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시,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 무료 개장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공간

광양시가 마동 근린공원에 ‘꿈빛놀이터’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 키우는 여름철 물놀이 공간 ‘꿈빛놀이터’는 24일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정비에 의해 휴장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45분 운영 후 1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가 입장할 수 있으며 6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광양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방문객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놀이 공간은 어린이 놀이영역, 유아 놀이영역, 사계절 놀이영역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이용객

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에어풀, 워터 슬라이드 등 신규 물놀이 시설도 추가 설치하고 물총 무료 대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14명의 안전·운영·정소 요원을 상시 배치된다. 수질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MY광양’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 선착순 입장도 가능하다. 정현숙 광양시 공원과장은 “마동 근린공원 꿈빛놀이터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놀이 공간이다”라며 “신규 개장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레디, 액션! ...순천 어린이들, 꿈을 찍다

순천어린이영화캠프 성료
3박 5일 어린이 영화 4편 창작

순천시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5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진행한 ‘2025 순천어린이영화캠프 애니시네in순천’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순천지역 14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24명이 참여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의 다양한 명소를 배경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연기와 촬영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완성했다. 참가자는 4개 모둠으로 나뉘어 무더위 속에서 서로 협동하며 각자의 재능을 발휘했다. 카메라 뒤에서 친구들을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실제 영화감독을 방불케 했다. 특히, 캠프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을 초청해 완성된 작품을 상영하는 특별한 시상회가 영상미디어센터 3층 영화관에서 열렸다. 스크린 속 주인공이 된 어린이들은 관객으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린이들의 도전을 함께 축하하며 “여러분이 직접 만든



순천어린이영화캠프 ‘애니시네in순천’ 참가자들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영화는 상상력과 협동심이 빛어낸 멋진 작품”이라며 “순천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격려했다. 한 캠프 참여자는 “영화는 보는 것도 재밌지만 친구들과 같이 만드는 것도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더웠지만 직접 만든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넘어,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라며 “어린이들이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미디어 활동들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고흥군민의 상, 후보자 다음달 5일까지 추천

문화·체육, 사회복지·산업 2개 부문

고흥군이 다음 달 5일까지 고흥 군민의 상 후보자를 선정 받는다. 고흥군은 11월1일 ‘제51회 고흥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추천서와 공적 입증

‘고흥군민의 상’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고흥군의 명예를 높인 자랑스러운 군민 또는 출향 인사에게 수여된다.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산업 등 2개 부문에서 1명씩 선정된다. 후보자는 읍·면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추천서와 공적 입증

자료는 후보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수상자는 10월 중 개최 예정인 군민의 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제51회 고흥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고흥군민의 상은 고 천경자 화백(고흥읍), 고 김일 프로레슬러(금산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점암면)·김태영(도양읍), 박흥근 국회의원(도덕면) 등 48명의 군민 및 출향 인사가 받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건물번호·도로명판 등 1만9982곳

곡성군이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의 관리 실태, 위치 적정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시설물의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조사는 도로명판 2556개, 사물주소판 345개, 건물번호판 1만 5757개, 기초번호판 1174개, 국가지점번호판 50개 등 총 1만 99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KAIS(주소정보관리시스템) 태블릿을 활용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망실·훼손여부, 표기 상태의 적정성, 위치의 정확성,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군은 조사 결과 부식이나 균열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완료했으며, 도로명판 45개 및 기초번호판 162개를 신규 설치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수 및 재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유지보



곡성군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훼손 색바랜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곡성, 오곡, 고달 지역의 노후 건물번호판 2000여 개에 대하여 2025년 새로 바뀐 건물번호판 양식 및 규격을 반영하여 건물번호판 정비에 완료했다. 군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일상화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위치 찾기 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300ml x 3병(9,000ml)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